

# 관세전쟁·탄핵정국·경기부진까지... 3월 韓 증시 ‘꽃샘추위’

전문가들 “정치적 불확실성 지속엔 투자심리 위축, 기업 이익에 영향”

외국인, 2월에만 3.7조 팔아치워 공매도 재개, 시장영향 크지 않을 듯  
증권가, 이달 코스피 상단 2700 전망 ‘저가 매수’ 신규 투자도 신중해야



코스피가 전 거래일(2621.75)보다 88.97포인트(3.39%) 급락한 2532.78에 마감한 지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뉴스

3월 한국증시에 한두 차례 꽃샘추위가 몰아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발 무역전쟁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어서다. 수출 둔화와 내수 부진이라는 안팎의 어려움 속에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당분간 웬만한 호재로는 증시 반등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비판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계속될 경우 단기적으로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중·장기적으로 기업 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외국인 투자자에게 한국 증시의 가격 측면의 매력에 부각되는 시점이지만, 정치적 불확실성에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경기 부양 정책 카드(추가경정예산 등)를 쓰는 데 실기(失期)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투자은행(IB)업

계 한 관계자는 “해외투자자를 비롯한 시장 참여자가 과거에 탄핵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한국 주식과 채권을 구매하는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면 “불확실 상황이 길어질수록 경기 부양책 타이밍을 놓칠 수 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외교가 지연되는 등 반전의 모멘텀을 찾기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기우가 아니다. 지난달 28일 코스피는 3.39% 하락한 2532.78에 마감했다. 이날 하루동안 외국인인 1조5562억원 어치를 팔았다.

◆한국경제 취향에는 데 외국인 투자할까  
과거보다 증시 환경이 더욱 우려스러

운 건 최근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 자체가 좋지 않아서다. 내수 위축은 물론, 범용(레거시)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의 추격 등 수출에도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지난해 11월 전망치보다 0.4%포인트 낮춰 잡았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구조화하고 있는 상황이 이번 한은 발표로 다시 확인됐다”며 “향후 트럼프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할 경우 경제성장률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트럼프 리스크도 확대되고 있다. 트

럼프 지난달 27일(현지시간) 중국과 멕시코, 캐나다에 대한 25% 관세 부과, 중국에 10% 추가 관세를 기습 예고하며 강수를 뒀다. 이에 중국 정부는 보복 조치를 시사하면서 ‘관세전쟁’이 본격화된 모습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코리아 엑소더스(대탈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일 모처럼 한국 증시에서 7970억원 ‘사자’에 나선 외국인들은 계엄 발표 다음날인 4일(수요일)부터 2월 말까지 8조1163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특히 2월 들어 외국인인 3조7026억원어치를 팔았다.

증권가는 공매도 재개 효과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다.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증시 상황이 지금과 큰 차이가 없다면 공매도 재개를 기다리던 외국인들이 얼마나 들어올지도 미지수다. 시장 전반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곳곳에 증시 짓누르는 악재

증권가는 3월 코스피 지수 상단을 최대 2700선으로 전망했다. KB증권은 3월 코스피 예상 범위를 2410~2670선으로 제시하며, 최대 2600선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키움증권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이슈는 미국 내 투자 유치를 위한 협상의 용도로 보는 것이 타당하

다고 봤으며, 3월 코스피 예상 밴드를 2520~2730선으로 전망했다.

3~4일 예정된 중국 양회 결과도 변수로 꼽힌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는 3~4일 중국 양회에서는 대대적인 내수 진작과 경기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기대감이 선반영 된 만큼 재료 소멸로 인한 매물 출회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코스피는 2600선을 중심으로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이 전개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다만 이 연구원은 “코스피 2600선이라는 또 한 번의 비중 확대 기회로 판단한다”며 “단기적으로는 순환매 대응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가가 더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를 노린 신규 투자는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B증권 리서치센터는 “트럼프 관세, 탄핵 결과, 공매도 재개, 환율 변동성 확대 등 리스크 요인이 다수 대기하고 있다”며 “관세 정책·반도체 보조금 취소 등은 추가적 이슈가 발생하며 증시 변동성을 확대시킬 전망이다”라고 내다봤다. 따라서 관련 산업 투자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심을 가져볼 만한 업종으로는 관세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엔터 종목 등이 꼽혔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조기 대선 가능성에 이재명 등 정치테마주 ‘요동’

오리엔트정공 주가 한달간 43.91% ↑ 정계 복귀 시사, 한동훈 관련주 ‘꿈틀’

금감원 “정치 테마주, 예측 어려워 이미 급등 종목 추종매수 자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식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5차 공판에 출석하며 인사하고 있다. /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 테마주가 연일 급등락하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른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마주’로 알려진 오리엔트정공의 주가는 최근 한 달 동안 43.91% 상승했다. 특히 지난달 24일 하루에만 17.40% 급등한 뒤 금융당국으로부터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됐다. 지정 다음 날인 25일에는

5% 하락했지만, 28일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다. 또 다른 관련주인 동신건설은 최근 한 달 동안 20.67% 올랐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정계 복

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관련 종목 주가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디티앤씨알오, 덕성, 대상홀딩스 등이 대표적인 한동훈 테마주로 꼽힌다.

홍준표 대구시장 테마주인 파인테크닉스도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테마주인 진양화학은 비상계엄 다음날 최저가 2150원에서 시작해 지난달 5일 고점 5790원까지 오르며 약 169% 상승했다. 이후 주가는 횡보 중이다.

금감원은 정치 테마주 관련 허위 사실, 풍문 유포 등 불공정거래 혐의를 발견하면 바로 조사에 착수해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이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 아래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도 “정치 테마주

는 주가 예측이 어렵고 미미한 정치 상황의 변화에도 주가가 급락할 수 있어 이미 급등한 종목에 대해 추종 매수는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상당수는 이들 정치인과 무관한 종목들이다. 오리엔트정공은 이 대표가 청소년 시절 계열사 ‘오리엔트시계’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은 본사가 이 대표의 고향인 경북 안동에 있다는 이유로 테마주로 묶였다.

남길남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정치테마주는 유력 정치인과 혈연·학연·지연으로 연관이 있거나 정책 수혜가 기대되는 기업의 주식들”이라며 “본질적 가치와 무관하게 이상 급등을 보이거나 불공정 거래 시비에 휘말리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다. /허정문 기자 zelkova@

## metro 관심종목

### 셀트리온

공장 부지선정·착공  
신제품 매출증가 기대  
한달간 주가 4.54% ↑

셀트리온에 대한 증권가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고마진 신제품의 매출 증가와 원가를 개선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기준 셀트리온의 주가는 18만 4000원으로 마감했다. 2월 한 달간 4.54% 상승한 것이다.

이는 상반기 실적 기저효과, 하반기 신제품 매출 확대, 셀트리온바이오솔루션의 공장 부지 선정 및 착공 소식이 투자 심리를 개선하면서 주가 상승을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의 지난해 연결 매출은 3조 55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63.4%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4920억원으로 24.5%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은 1조637억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으며, 영업이익은 1964억원으로 966% 급증했다.

증권가들은 올해 하반기부터 스테키마, 짐펜트라, 인플렉트라 등 번들링이 가능한 제품이 늘어나면서 보험사(PBM)와의 협상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본격적인 매출 성장은 2026년으로 전망했다.

키움증권은 셀트리온의 올해 연결 매출액을 전년동기대비 22% 증가한 4조3447억원으로 예상했다. 영업이익은 176% 증가한 1조3523억원을 전망했다. /김대환 기자 kdh@

## 증권가, 여성임원 8%대 제자리... 유리천장 여전

금감원, 자기자본 상위 10곳 분석  
임원 총 562명 중 여성임원 49명

국내 증권사들의 ‘유리천장’이 여전히 단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기자본 상위 10개 증권사의 지난해 6월 말 기준 반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임원 562명 중 여성 임원은 49명(8.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전 분기였던 2023년 말 8.18% 대비 소폭 증가했지만, 여전히 100명 중 약 8명 수준에 머물렀다. 3연임에 성공했던 박정림 전

KB증권 대표가 사임한 이후로는 금융투자업계에서 여성 최고경영자(CEO)가 후보로도 거론되지 않고 있다. 은행권에서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유명순 한국씨티은행장 등이 여성 대표 자리를 지키고 있다.

사회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지난 2022년 8월부터 이사회 성별 다양성 등이 담긴 개정 자본시장법이 시행됐다.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주권상장법인인 이사회 이사 전원을 특정 성(性)으로 구성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내

용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증권가는 해당 규제를 준수하는 수준으로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권가 내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고, 이로 인해 여성 임원·대표 수도 드물었다”며 “인위적으로 조정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여성 임원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증권사들이 ESG 경영도 활발해지고 있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증권가에서도 대형 증권사들을 중심으로 성별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

한 흐름이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정기인사를 진행한 미래에셋증권은 여성 리더들을 대거 발탁했다. 당시 국내 89명, 해외법인 8명의 승진 인사를 단행했는데 이에는 인수합병(M&A)팀 이사, 김화중 PWM부문 대표, 문지현 글로벌 전략팀 상무 등 여성 임원을 새롭게 선임했다.

여성 임원의 비율도 높은 편에 속한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래에셋증권의 여성 임원 수는 12명으로, 증권가 중 유일하게 여성 임원 두 자릿수를 기록했으며, 2024년 통합보고서 기준으로는 기업금융(IB), 고액자산관리(WM) 등 수익부서 임원 157명 중 30명(19.1%)이 여성이다. /신하은 기자